

10개월연속 백억달러 수출

3월 IT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45.0% 증가한 127.4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IT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이후 10개월 연속 100억 달러 대 수출을 기록하였다. IT수치는 전산업 흑자(21.9억 달러)의 2.9배 많은 63.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수출업 수치 흑자를 견인하였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40.4억 달러, 123.1%)와 디스플레이패널(28.4억 달러, 46.3%)은 對중국 수출 호조로 IT수출입 통계 집계를 시작한 '96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휴대폰(20.4억 달러, △14.8%)은 국내 업체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및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이 감소되었다.

반도체 수출은 4개월 연속 세 자릿수 증가로 기존 최대치인 '06.11월 39.4억 달러를 40개월 만에 경신하였고, 패널 수출은 10개월 연속 증가로 기존 최대치인 '09.10월 26.6억 달러를 5개월 만에 넘어서었다.

【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는 전년 동월대비)

| 구분 | 2010년 | | 2009년 | | |
|------|-------|--------------|----------------|---------------|---------------|
| | 3월 | 1~3월 | 3월 | 1~3월 | |
| 수출 | 전체 산업 | 376.9 (35.1) | 1,016.4 (36.6) | 278.9 (△22.5) | 744.2 (△25.2) |
| | IT 산업 | 127.4 (45.0) | 344.6 (47.4) | 87.8 (△26.8) | 233.7 (△30.1) |
| 수입 | 전체 산업 | 354.9 (48.4) | 980.1 (37.2) | 239.2 (△35.5) | 714.2 (△32.7) |
| | IT 산업 | 63.9 (36.8) | 169.3 (33.2) | 46.7 (△30.8) | 127.1 (△33.2) |
| 무역수지 | 전체 산업 | 21.9 | 36.3 | 39.7 | 30.0 |
| | IT 산업 | 63.5 | 175.3 | 41.1 | 106.6 |

국가별로는 중국(홍콩포함, 57.6억 달러, 69.6%), ASEAN(11.2억 달러, 50.0%), 중남미(8.2억 달러, 42.2%) 등 개도국이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EU(15.6억 달러, 7.6%), 미국(14.3억 달러, 15.0%), 일본(6.2억 달러, 47.5%) 등 선진 시장 수출도 증가하였다.

한편, IT수입은 전자부품(37.2억 달러, 36.5%), 컴퓨터 및 주변기기(8.6억 달러, 42.1%) 등 주요 품목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36.8% 증가한 6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향후 IT수출은 글로벌 경제 회복과 미국, 중국 등 각국의 소비부양정책 운영으로 당분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은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세트 제품의 꾸준한 수요 확대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구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남유럽 재정위기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상존하는 점은 수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도체 : 40.4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23.1% 증가

반도체는 4개월 연속 세 자릿수 수출 증가로 기존 최대치인 '06.11월 39.4억 달러를 40개월 만에 경신하며 사상 최대 수출 실적 기록하였다.

D램은 제품 수요 다변화(휴대폰용, 서버용 등) 및 국내 업체 비교 우위 제품인 DDR3의 채용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204.1% 증가한 1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컴퓨터 제조사의 DDR3 탑재 컴퓨터 출하 확대, 각국의 전력 소모 규제 강화로 DDR3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이며, 시장조사기관 IDC는 D램 중 DDR3 비중을 '09년 말 30%대 중반에서 '10년 말에는 70%대로 확대 전망이다.

【 반도체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 구분 | '09.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0.1 | 2 | 3 |
|-----|--------|--------|--------|--------|--------|--------|-------|-------|--------|--------|--------|--------|--------|
| 반도체 | 18.1 | 21.1 | 24.0 | 25.1 | 27.0 | 28.8 | 32.1 | 34.3 | 35.0 | 34.4 | 33.1 | 33.5 | 40.4 |
| | △38.4% | △26.2% | △22.1% | △23.0% | △15.6% | △7.2% | 9.2% | 36.4% | 80.1% | 125.5% | 121.1% | 117.9% | 123.1% |
| 메모리 | 8.7 | 9.8 | 11.5 | 12.4 | 13.3 | 14.7 | 16.0 | 17.8 | 19.4 | 20.0 | 19.7 | 19.3 | 22.8 |
| | △45.2% | △37.6% | △32.8% | △28.9% | △23.3% | △12.7% | 10.5% | 56.0% | 114.1% | 174.8% | 172.8% | 144.6% | 163.9% |
| D램 | 5.0 | 5.3 | 6.3 | 6.9 | 8.1 | 8.7 | 9.3 | 10.5 | 12.4 | 13.8 | 13.8 | 13.0 | 15.1 |
| | △41.2% | △37.4% | △34.0% | △33.5% | △25.0% | △20.6% | 19.6% | 69.1% | 141.1% | 186.4% | 215.1% | 195.9% | 204.1% |
| 낸드 | 1.3 | 1.4 | 1.7 | 1.6 | 1.6 | 2.0 | 2.1 | 2.4 | 2.0 | 1.8 | 2.1 | 2.1 | 2.4 |
| | △42.5% | △37.6% | △30.6% | △31.9% | △31.5% | △2.4% | 24.5% | 86.1% | 78.0% | 132.4% | 110.0% | 92.5% | 81.9% |

*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한편, 낸드플래시(2.4억 달러, 81.9%)는 스마트폰, SSD(Solid State Drive), 태블릿 PC 등의 견조한 수요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81.9%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22.1억 달러, 159.1%)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미국(2.9억 달러, 116.9%), 일본(2.4억 달러, 85.2%), EU(2.9억 달러, 121.0%) 등 선진 시장 수출도 증가세이다.

패널(부분품 포함) : 28.4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46.3% 증가

패널 수출은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기존 최대치인 '09.10월의 34.3억 달러를 5개월 만에 경신하였다.

패널은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 스포츠 이벤트, 중국의 가전하향 확대 정책 등 글로벌 수요 확대와 국내 업체의 수직계열화, 이에 따른 탄력적 수요 대응 능력이 경쟁국과 차별화되면서 수출 호조세 유지한다.

중국 가전하향정책이란 농촌지역에서 가전 제품(세탁기, 컬러TV, 냉장고, 휴대폰, 컴퓨터, 온수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신규 구매시 판매가격의 13%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LCD 가격(TV용 Full HD, 42인치, \$)은 ('09.9)350 →(10)348→(11)340→(12)340→('10.1)340→(2)340→(3)340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66.8%), 멕시코(17.3%), 브라질(159.1%) 등 주요 생산거점에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 구분 | '09.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0.1 | 2 | 3 |
|-------|---------|--------|--------|-------|-------|-------|-------|--------|--------|---------|--------|--------|--------|
| 금액 | 19.4 | 20.2 | 21.1 | 22.4 | 25.0 | 25.5 | 26.3 | 26.6 | 24.9 | 26.3 | 24.7 | 23.3 | 28.4 |
| (증감률) | (Δ12.7) | (Δ8.6) | (Δ7.1) | (4.0) | (5.1) | (7.8) | (4.1) | (10.3) | (34.9) | (113.7) | (99.7) | (55.8) | (46.3) |

휴대폰(부분품 포함) : 20.4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4.8% 감소

국내 업체 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및 해외 생산 확대로 수출은 감소세이다. 휴대폰 1위 업체인 Nokia의

외주 및 해외 생산 비중('08년)은 98%이고, Apple은 대만 OEM업체인 Foxconn에서 아이폰을 전량 생산한다.

수출은 비록 감소했으나, 지역 마케팅 강화, 다양한 제품 라인업, 자체 모바일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세계 시장 점유율은 꾸준한 증가세이다. 휴대폰 시장점유율(%), 삼성+LG+팬택)은 ('08.3분기) 25.3 → (4분기) 27.5 → ('09.3분기) 32.5 → (4분기) 31.4이다.

지역별로 일본(0.7억 달러, 4.0%) 수출은 증가한 반면, 미국(5.9억 달러, Δ14.4%), 중국(홍콩 포함, 6.0억 달러, Δ12.7%), EU(3.0억 달러, Δ39.5%) 등은 감소했다.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 구분 | '09.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0.1 | 2 | 3 |
|-------|---------|---------|---------|--------|---------|---------|---------|---------|-------|--------|--------|---------|---------|
| 금액 | 23.9 | 24.4 | 24.9 | 25.1 | 26.2 | 22.8 | 25.1 | 25.8 | 24.6 | 18.4 | 21.2 | 18.7 | 20.4 |
| (증감률) | (Δ21.3) | (Δ18.4) | (Δ11.1) | (Δ7.4) | (Δ11.4) | (Δ18.0) | (Δ22.6) | (Δ31.3) | (2.7) | (12.8) | (Δ3.4) | (Δ20.9) | (Δ14.8) |

중국(홍콩 포함) : 57.6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69.6% 증가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반도체(22.1억 달러, 159.1%), 패널(17.5억 달러, 66.8%) 등 부품 수출 증가로 기존 최대 실적 '10.1월 52.4억 달러를 불과 2개월 만에 재경신하였다.

휴대폰(6.0억 달러, Δ12.7%) 및 모니터(1.1억 달러, Δ2.2%) 수출은 감소하였다.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 구분 | '09.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0.1 | 2 | 3 |
|-------|---------|---------|---------|--------|--------|-------|--------|--------|--------|---------|---------|--------|--------|
| 금액 | 33.9 | 36.5 | 37.5 | 41.4 | 46.1 | 46.8 | 51.3 | 51.4 | 50.3 | 51.5 | 52.4 | 46.7 | 57.6 |
| (증감률) | (Δ23.5) | (Δ16.7) | (Δ13.6) | (Δ4.8) | (10.7) | (3.8) | (11.2) | (14.4) | (49.7) | (122.2) | (111.0) | (56.3) | (69.6) |
| 중국 | 27.4 | 29.0 | 29.4 | 32.4 | 36.1 | 36.5 | 40.4 | 39.8 | 38.9 | 41.2 | 42.0 | 36.5 | 45.8 |
| (증감률) | (Δ22.9) | (Δ16.9) | (Δ14.2) | (Δ5.2) | (2.3) | (4.7) | (13.9) | (14.6) | (54.4) | (132.8) | (124.5) | (55.2) | (67.5) |
| 홍콩 | 6.6 | 7.4 | 8.1 | 9.0 | 10.0 | 10.2 | 10.9 | 11.6 | 11.4 | 10.3 | 10.4 | 10.2 | 11.8 |
| (증감률) | (Δ26.0) | (Δ16.0) | (Δ11.4) | (Δ3.3) | (Δ4.4) | (0.6) | (1.9) | (13.8) | (35.4) | (87.7) | (69.5) | (60.2) | (78.7) |

미국 : 14.3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5.0% 증가

반도체(2.9억 달러, 116.9%), 패널(0.8억 달러, 76.8%) 등 전자부품이 對미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휴대폰 수출(5.9억 달러, △14.4%)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 수출은 확대되었다.

모니터(0.3억 달러, 90.7%), TV부분품(0.3억 달러, 168.9%), HDD(0.1억 달러, 39.3%) 등은 수출 증가세 유지했다.

【對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 구분 | 09.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0.1 | 2 | 3 |
|-------|---------|---------|-------|--------|--------|--------|---------|---------|--------|--------|-------|-------|--------|
| 금액 | 12.4 | 14.3 | 14.5 | 14.0 | 14.5 | 13.0 | 13.3 | 13.6 | 13.6 | 12.3 | 12.1 | 13.2 | 14.3 |
| (증감률) | (△20.2) | (△15.1) | (1.7) | (△3.1) | (△8.5) | (△9.3) | (△15.9) | (△17.0) | (15.4) | (25.3) | (3.1) | (5.5) | (15.0) |

EU : 15.6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7.6% 증가

패널(4.5억 달러, 8.9%), 반도체(2.9억 달러, 121.0%), TV부분품(1.7억 달러, 47.7%) IT 부(분)품이 수출을 견인했으나, 휴대폰(3.0억 달러, △39.5%)은 부진하였다.

일본 : 6.2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47.5% 증가

국내 기업의 일본 휴대폰 마케팅 강화에 따라, 휴대폰 수출(0.7억 달러, 4.0%)은 증가하였다. 반도체(2.4억 달러, 85.2%), 셋탑박스(0.1억 달러, 52.4%), 모니터(0.1억 달러, 50.9%) 등 전반적인 수출 증가세이다.

'10.3월 IT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6.8% 증가한 63.9억 달러로 '09.10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이다.

품목별로는 IT경기 회복에 따라 반도체(25.7억 달러, 35.5%), 패널(5.7억 달러, 47.1%), 접속부품(3.2억 달러, 35.2%) 등 전자부품(37.2억 달러, 36.5%)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8.6억 달러, 42.1%), IT응

용·기반기기(8.8억 달러, 40.2%), 의료정밀광학기기(6.1억 달러, 52.5%), 전기장비(1.9억 달러, 22.4%) 등도 증가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로 무선통신기기(부분품 포함, 3.8억 달러, 11.4%)의 수입 수요도 두 자릿수 증가세이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포함, 22.5억 달러, 33.9%), 일본(9.5억 달러, 24.8%), 대만(7.3억 달러, 53.1%) 등 주요 수입국 모두 증가하였다.

【3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 구분 | 전자부품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IT 응용·기반기기 | 전체 |
|----------|-------------|------------|-------------|-------------|
| 전체 | 37.2 (36.5) | 8.6 (42.1) | 8.8 (40.2) | 63.9 (36.8) |
| 중국(홍콩포함) | 11.0 (32.0) | 5.8 (55.7) | 1.6 (4.5) | 22.5 (33.9) |
| 일본 | 5.9 (26.3) | 0.4 (21.8) | 2.2 (66.5) | 9.5 (24.8) |
| 미국 | 3.6 (76.9) | 0.6 (7.4) | 2.0 (60.7) | 6.6 (52.5) |
| 대만 | 5.7 (38.3) | 0.2 (14.5) | 0.1 (115.5) | 7.3 (53.1) |

칼라 TV(부분품 포함) : 5.1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51.2% 증가

칼라TV는 중국 TV 시장의 본격 성장기 진입, 국내 업체 주도의 LED TV 시장 확산으로 수출이 확대되었다.

국내업체는 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적 출시와 주요 유통채널 마케팅 강화를 통해 글로벌시장 지배력을 확대한 것이다.

평판TV시장점유율(매출기준, %)은 ('06)25.0 → ('07)28.9 → ('08)33.8 → ('09)35.7 이다.

LCDTV가격(42인치, \$)은 ('09.6)985 → (7)994 → (8)1,187 → (9)1,075 → (10)1,020 → (11)1,040 → (12)1,007 → ('10.1)1,004 이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65.6%), 멕시코(27.1%), 폴란드(35.1%), 헝가리(40.7%), 인도(170.9%) 등 주요 생산거점에서의 수출은 증가세 유지하였다.